북한의 인구센서스결과 분석

盧龍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1. 북한의 인구통계 개관

북한의 인구문제는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의 분석을 위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어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인구자료가 국가정책의 계획 및 통계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체제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구정책기조와 현실적인 통계자료의 구비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인구문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를 포함하여 그동안 북한이 발표한 각종 통계자료는 양적으로도 매우 부족하며, 자료 자체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보다나아 다양한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내용을 달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북한은 1963년부터 공산당정권의 지도 공개 금지에 따라 공식적인 통계자료의 발표를 통제해 왔으며, 간첩적으로 "조선중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하여 다소 모호한 내용의 선폘중 통계자료를 발표해 왔을 뿐이다. 따라서 기존에 국제기구 등 몇몇 기관이 발표한 북한인구 관련 통계자료도 이들이 독자적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보다는 북한이 제공하는 통계를 자체기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자료는 단면적인 정보로 기초함으로써 북한의 현실과 다른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 (UNFPA)의 기술적인 원조를 받기 위해 지난 1980년 연구자료와 그에 관련된 사회지표들만 UNFPA 측에 제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인구관련 자료 중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었던 '여자출산수준의 테그리드'의 토크소도 바로 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북

한국은 1994년 1월 3~15일 기간 동 UNFPA의 도움을 받아 해방 이후 최초의 인구총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북한의 인구조사는 중앙 및 지방 행정단위의 인
구통계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북한자정
위원회 산하 중앙통계국(Central Bureau of Statistics)이 각 지방에 설치된 통계국
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인구통조사회 실시
된 적은 이례이지만 현이다. 이에 대해 북한
스토로 “보다 일련하고 본격적인 인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최초의 현대적인
인구조사서” 결과라고 적고 있다.
그 결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
구조사조사자료집’으로 제시되었는데, 이
조사는 1994년 12월 31일 가장 현재 북한
국적의 모든 거주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범주에는 기숙사, 노인 수용시설
과 같은 집단생활시설 단위를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UNFPA의 지원을 받
아 북한에 발표한 인구조사서 자료를 중
심으로 1994년도 북한의 인구현황을 분석
해 보라고 한다.
2. 충인구성

북한의 충인구는 지역별관계 결과 1995
년말 현재 약 2121만명(성비 94.9%)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한국은행”과 “어버쉬

2)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ri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트(1991)의 1995년도 북한연령인구 추
정치(2265만)와 약 144만명의 차이를 보이
는 수치이다. 그런데 연령별 인구비율과
도 ‘농’ 인구비율을 제시한 부분에서는 충
인구의 약 2032만명(남녀성비 89.2%)으로
기재하여 지역별 인구계수와 약 69만명(남
녀 65만, 여자 44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39~42세 사이의 남녀인구가 전후
연령에 비해 유달리 적게 나타나고 있어
이 연령구간에 속하는 인구가 30만명이
성 퇴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왜냐하면 이 연령구간의 개별 연
령별 인구수는 각각 38세 및 43세와 비교
할 때 적게는 38,247명(남자 16,261명, 여
자 16,856명)에서 많게는 111,900명(남자
54,341명, 여자 57,559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해의 39~42세 구간에 속하는
개별연령별 인구를 각각 38세 및 43세의
인구와 통일하고 가정할 경우 추정할
수 있는 누락인구수는 약 297,888(남자
148,441명, 여자 149,457명)~341,682명(남
자 166,629명, 여자 175,053명)이 된다. 그
리고 이러한 추정은 어버쉬트라가 제시한
이 연령구간(1990년 현재 35~39세)의 남

97/4 보건복지포럼 43
표 1. 북한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1993년말 현재)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합계</th>
<th>남자</th>
<th>여자</th>
<th>성비</th>
</tr>
</thead>
<tbody>
<tr>
<td>총인구(A)</td>
<td>21,123,378</td>
<td>10,329,699</td>
<td>10,893,679</td>
<td>94.91</td>
</tr>
<tr>
<td>총인구(B)</td>
<td>20,522,351</td>
<td>9,677,663</td>
<td>10,844,688</td>
<td>89.24</td>
</tr>
<tr>
<td>0~15세</td>
<td>6,045,975</td>
<td>3,100,141</td>
<td>2,945,834</td>
<td>105.24</td>
</tr>
<tr>
<td>16~24세</td>
<td>3,067,515</td>
<td>1,208,429</td>
<td>1,759,086</td>
<td>74.38</td>
</tr>
<tr>
<td>25~29세</td>
<td>2,019,525</td>
<td>987,095</td>
<td>1,032,430</td>
<td>95.51</td>
</tr>
<tr>
<td>30~34세</td>
<td>1,607,929</td>
<td>791,117</td>
<td>816,812</td>
<td>96.85</td>
</tr>
<tr>
<td>35~39세</td>
<td>1,386,454</td>
<td>682,990</td>
<td>703,464</td>
<td>97.09</td>
</tr>
<tr>
<td>40~44세</td>
<td>990,787</td>
<td>442,309</td>
<td>548,478</td>
<td>94.85</td>
</tr>
<tr>
<td>45~49세</td>
<td>1,243,077</td>
<td>603,250</td>
<td>639,827</td>
<td>94.28</td>
</tr>
<tr>
<td>50~54세</td>
<td>1,208,802</td>
<td>582,990</td>
<td>625,812</td>
<td>93.16</td>
</tr>
<tr>
<td>55~59세</td>
<td>1,063,637</td>
<td>487,276</td>
<td>576,361</td>
<td>84.54</td>
</tr>
<tr>
<td>60~64세</td>
<td>748,594</td>
<td>301,764</td>
<td>446,820</td>
<td>67.53</td>
</tr>
<tr>
<td>65세 이상</td>
<td>1,140,036</td>
<td>350,322</td>
<td>789,714</td>
<td>44.36</td>
</tr>
</tbody>
</table>

주: 1) 여자 100명당 남자 수
2) 지역별 인구학적 수치
3) 연령별 및 도, 농 인구학적 수치

자인구수(약 69만명)가 당시 40세~44세 구간의 연령층(약 55만명)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것은 사실로 보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인구수가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물론 수용방법상의 오차도 그 한 원인이겠으나, 그보다는 북한이 인구학적 기준으로 군인들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누락되기 쉽다는 점이 주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6~24세 사이의 남녀정비가 유달리 적게 나타나고 있어 이 연령구간에 속하는 군북무 중인 남자들이 누락된 것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북한의 인구학적 자료에서 누락되었다고 생각되는 군인수를 표 2에 서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해 보면 약 63~125만명 정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결과는 그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추정된 군 인수를 북한의 인구학적 자료에 나타난 지 역별, 연령별 희생동력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연령별 총인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 지

44 보건복지포럼 97/4
아 할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의 실적 농민
구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북한의 최대 추정가능
군인수 약 25만을 북한 인구센터 자료에 나타난 지역별 공민구로에 대하여 1993
년도 북한의 총인구는 약 224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추정
치와 약 199만명의 차이에 보이지 않는 수치이다.

3. 지역별 인구분포

북한은 남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과
비교할 때 대도시 인구정도 현상은 심하
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3년말 현재 북한수도 평양의 인구는

대도시 인구 중 34%를 차지하고 있고, 전
체 도시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8%
에 불과하여 서울 인구(1990년 기준 남한
전체인구의 24.4%)와 비교할 때 약 반 정
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
는 북한이 국내외 이민들은 물론 국내에서
의 거주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농
촌에서 도시로의 이동 등 거주이전 사례
가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thead>
<tr>
<th>주요방법</th>
<th>군인수</th>
<th>총인구</th>
<th>통합원추정치(단위: 명, %)</th>
</tr>
</thead>
<tbody>
<tr>
<td>북한총인구의 6.1%</td>
<td>1,251,863</td>
<td>21,774,214</td>
<td>961</td>
</tr>
<tr>
<td>16~24세 남자 중 45%</td>
<td>1,114,583</td>
<td>21,636,929</td>
<td>95.3</td>
</tr>
<tr>
<td>설비 95.2 적용</td>
<td>754,927</td>
<td>21,277,527</td>
<td>93.3</td>
</tr>
<tr>
<td>설비 100.1 적용</td>
<td>1,177,870</td>
<td>21,700,221</td>
<td>95.8</td>
</tr>
<tr>
<td>남자인구의 지역별합계와 연령별 합계의 차이</td>
<td>652,056</td>
<td>21,213,378</td>
<td>93.7</td>
</tr>
</tbody>
</table>

주: 1) 엘바스터트의 1987년 북한군인수 추정치 25만명(당시 북한총인구의 6.1%) 적용
2) 엘바스터트의 17~25세 연령층 남자 중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 추정치 45%를 본 센서스
자료의 남녀모아 차가 두드러지는 연령인 16~24세 남자인구에 역학하여 적용
4) 통계청. "남한의 경제 사회상 비교", 1996. 11.
표 3. 북한의 지역별 인구구조(1993년말 현재)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합계</th>
<th>도시</th>
<th>농촌</th>
<th>도시화율</th>
<th>인구비증</th>
</tr>
</thead>
<tbody>
<tr>
<td>총인구</td>
<td>20,522,351</td>
<td>12,501,217</td>
<td>8,021,134</td>
<td>60.92</td>
<td>-</td>
</tr>
<tr>
<td>성 비</td>
<td>(86.24)</td>
<td>(90.85)</td>
<td>(86.77)</td>
<td>-</td>
<td>-</td>
</tr>
<tr>
<td>평양특별시</td>
<td>2,741,260</td>
<td>2,254,898</td>
<td>385,362</td>
<td>85.91</td>
<td>18.84</td>
</tr>
<tr>
<td>남포직할시</td>
<td>731,448</td>
<td>566,215</td>
<td>165,233</td>
<td>77.41</td>
<td>4.53</td>
</tr>
<tr>
<td>양강도</td>
<td>638,475</td>
<td>459,942</td>
<td>178,493</td>
<td>72.04</td>
<td>3.68</td>
</tr>
<tr>
<td>함경북도</td>
<td>2,060,725</td>
<td>1,482,753</td>
<td>577,972</td>
<td>71.95</td>
<td>11.86</td>
</tr>
<tr>
<td>자강도</td>
<td>1,452,733</td>
<td>753,242</td>
<td>399,491</td>
<td>65.35</td>
<td>6.03</td>
</tr>
<tr>
<td>평안남도</td>
<td>2,866,109</td>
<td>1,775,085</td>
<td>1,091,023</td>
<td>61.93</td>
<td>14.20</td>
</tr>
<tr>
<td>함경남도</td>
<td>2,732,232</td>
<td>1,638,675</td>
<td>1,073,555</td>
<td>60.71</td>
<td>13.27</td>
</tr>
<tr>
<td>평안북도</td>
<td>2,404,490</td>
<td>1,306,801</td>
<td>1,097,689</td>
<td>54.35</td>
<td>10.45</td>
</tr>
<tr>
<td>개성직할시</td>
<td>324,423</td>
<td>171,431</td>
<td>162,982</td>
<td>48.73</td>
<td>1.37</td>
</tr>
<tr>
<td>강원도</td>
<td>1,304,481</td>
<td>610,732</td>
<td>693,749</td>
<td>46.82</td>
<td>4.69</td>
</tr>
<tr>
<td>황산군7)</td>
<td>32,952</td>
<td>15,423</td>
<td>17,529</td>
<td>46.80</td>
<td>0.12</td>
</tr>
<tr>
<td>황해북도</td>
<td>1,512,060</td>
<td>659,365</td>
<td>852,695</td>
<td>43.51</td>
<td>5.27</td>
</tr>
<tr>
<td>황해남도</td>
<td>2,010,933</td>
<td>686,533</td>
<td>1,324,420</td>
<td>34.14</td>
<td>5.49</td>
</tr>
</tbody>
</table>

주: 1) 전체인구 중에서 도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2) 전체인구 중에서 해당 시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
3) 역자 100명당 남자 수
4) 북한은 행정구역을 크게 9도 : 평양직할시, 2직할시, 그리고 행정구역인 양강군(함덕군)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항산군'은 군 단위임으로 불구하고 시도별 분류에 속하고 있는 것임.

이에 대해 에비시사토는 북한이 1970년대에 도시인구의 양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도 주민등록제와 사회적부서에서 발생하는 이주통계를 사용하여 체계적 통계가 있으며, 인구통계 업무에 대한 이러한 자료를 보면 1987년 현재 북한의 인구이동 비율은 전체인구의 5.9%로 같은 시기 남한의 22.6%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고 있는 데, 그나라의 인구이동으로 도시에서 도시, 농촌에서 농촌으로의 이동이 대부분이라는 결과를 보고 한다.
한편 북한의 총인구 중 약 61%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수치는 그대로 바라보면 북한의 1980년대 초반 인구 10명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비율(도시화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30.7%가 농업인구로 나타나 간접적이면 북한을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한 도시화율 통계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인구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지 않아 북한의 도시화율을 나타내는 통계자료가 논의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도시화의 기준지표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 하면 북한이 말하는 도시인구가 단순히 비농업인구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구를 도시인 구로 간주했거나, 도시의 기준을 달로 완화하여 측정할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인구동태

북한은 경제발전수준이 낮고,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대수명이 높고, 출생률 및 사망률은 낮게 제시하고 있어 인구동태 측면에서는 이미 개도국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보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인구의 약 5.6%로 집계되어 국가로 남한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제시한 인구세극자료에는 기대수명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비 수량은 1993년 현재 북한의 기대수명을 69.8세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이라면 북한주민의 기대수명은 UN이 전망한 선진국가들의 평균(1990~95년, 74세)보다는 낮지만, 아시아국가들의 평균(1990~95년, 65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의 기대수명이 사망수과 다른 체계에 의해 수치되는 경우 북한의 기대수명은 여기서 제시한 69.8세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일정 기수율을 계산하는 데 복잡한 결과와 사망율과 중앙 통계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도적·의무적인 오차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93년 연간인구 증가량 상생의 출생비율 사망률은 각각 19.8%와 5.5%로 아시아국가들의 평균(1990~95년 출생율 24만, 사망률 8만)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영아사망률도 1993년 말 현재 14.1%로 추정되고 있는데, 선진국 평균(1990~95년 11%)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아직 아시아 평균 62.2%보다는 월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북한인구세극자료에는 영아사망률이 제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북한의 경제 발전 수준이 낮고,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다.
표 4. 북한의 인구동태(1993년말 현재)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전체</th>
<th>남자</th>
<th>여자</th>
<th>성비(%)</th>
</tr>
</thead>
<tbody>
<tr>
<td>조산생률</td>
<td>19.83</td>
<td>20.86</td>
<td>18.85</td>
<td>-</td>
</tr>
<tr>
<td>출생자수</td>
<td>420,576</td>
<td>213,444</td>
<td>205,132</td>
<td>105.03</td>
</tr>
<tr>
<td>조사망률</td>
<td>6.43</td>
<td>6.01</td>
<td>4.92</td>
<td>-</td>
</tr>
<tr>
<td>사망자수</td>
<td>113,669</td>
<td>62,046</td>
<td>50,823</td>
<td>1.13.84</td>
</tr>
<tr>
<td>자연증가율</td>
<td>14.38</td>
<td>14.85</td>
<td>13.93</td>
<td>-</td>
</tr>
<tr>
<td>자연증가수</td>
<td>304,907</td>
<td>152,398</td>
<td>151,169</td>
<td>101.21</td>
</tr>
<tr>
<td>영아사망률</td>
<td>14.08</td>
<td>13.16</td>
<td>12.97</td>
<td>-</td>
</tr>
<tr>
<td>0세 사망자수</td>
<td>5,922</td>
<td>3,251</td>
<td>2,971</td>
<td>122.55</td>
</tr>
<tr>
<td>기대수명(세)</td>
<td>69.8</td>
<td>67.4</td>
<td>72.8</td>
<td>-</td>
</tr>
<tr>
<td>65세 이상 인구(%)</td>
<td>(3.56)</td>
<td>(4.83)</td>
<td>(6.68)</td>
<td>-</td>
</tr>
</tbody>
</table>

주: 1) 인구변화량은 출생자-사망자수로 인구는 지역별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만약에
여기에 누락된 군인수를 포함시킬 경우 이 수치는 낮아질 것입니다.
2) 사망자수에 군인이 포함되었지만, 출산기에는 군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에 사망률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3) 영아사망률은 산아 사망자 중 0세때 1년에 죽은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 데, 여기서는 1세 미만(0세 포함)의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4) 에비슈타트(1991)에 의한

여러 가지 양식(표 4)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여 실체보다 왜소 평가했을 가능성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에비슈타트의
예측(1993년 28.6%)을 적용해도 여전히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낮은 영
아사망률은 북한 인민보건법(1960. 4. 3.)에 나타나 있는 약방역학적 방침과, 여성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목적으로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1978. 4. 8.)에서 계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정책 등 일반적인 기 초보건체계를 어느 정도 갖춘 결과일 것
으로 보인다.

5. 북한의 노동력구조

1993년 현재 16세 이상 전년함수를 기준으로 한 북한의 노동가능인구(군인 제외)는 147만 6천여 명으로 출산기의 약 70.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실제 경제활동인구는 약 110만여 명으로서
76%의 높은 경제활동멍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망을 보고 있음으로

48 보건복지포럼 97/4
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한의 경제활동참가율 60%(1990년 현재)는 물론 제2제한 이전인 1985년 판저 구소련(70.8%), 폴란드(70.4%), 구동독(71.8%)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활동

인구비율이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계산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북한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을 측정하면 이 수치는 다소 낮아질 것이다.

이렇듯 이러한 인구통계 결과는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완전히 없어졌다”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 제5조, 1978. 3. 1. 시행하고 주장하는 북한의 노동 정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중가동률이 30%로 인되는 현실에서 이같은 사실상의 완전고용체제의 유지하고 있는 거 사실이라면 북한의 노동


인구중 상당수가 과징 벌칙되었거나 볼빨간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노동가능인구 중 노인인구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의 경제

활동인구를 제외한 비활동인구의 대부분은 학생(34.5%)과 장로주부(36.9%)이며, 그외로 직업학교 학생(3.9%) 및 불구가 (4.3%)가 나타났다.

표 5. 북한의 노동인구(1993년말 현재)
(단위: 명, %)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합계</th>
<th>남자</th>
<th>여자</th>
<th>총인구대비</th>
<th>여성인력비중</th>
</tr>
</thead>
<tbody>
<tr>
<td>노동가능인구(A)</td>
<td>12,011,563</td>
<td>5,925,486</td>
<td>6,086,077</td>
<td>58.5%</td>
<td>50.57%</td>
</tr>
<tr>
<td>노동가능인구(B)</td>
<td>14,476,375</td>
<td>6,577,522</td>
<td>7,898,853</td>
<td>70.5%</td>
<td>54.36%</td>
</tr>
<tr>
<td>경제활동인구</td>
<td>11,004,342</td>
<td>5,561,851</td>
<td>5,442,491</td>
<td>53.6%</td>
<td>49.46%</td>
</tr>
<tr>
<td>경제활동참가율</td>
<td>76.0%</td>
<td>84.6%</td>
<td>68.9%</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 1) 북한의 노동력가능 인구(군인 제외)
2) 노동력의 연령기준 각각는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각각의 노동가능연령 인구)
3) 경제활동인구의 필요반(6세 이상 인구수를 계산
4) 남녀 모두 15세 이상 전형성층을 대상으로 함
5) 노동가능인구(B) 대비 경제활동인구

표 6. 북한의 비노동인구 분포(1993년말 현재)\(^1\)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합계</th>
<th>남자</th>
<th>여자</th>
<th>비노동인구대비</th>
<th>여성인력비중</th>
</tr>
</thead>
<tbody>
<tr>
<td>학생</td>
<td>686,689</td>
<td>418,194</td>
<td>268,655</td>
<td>34.5%</td>
<td>39.11%</td>
</tr>
<tr>
<td>직업학교 학생</td>
<td>49,358</td>
<td>24,743</td>
<td>24,615</td>
<td>3.9%</td>
<td>49.82%</td>
</tr>
<tr>
<td>불구자</td>
<td>57,833</td>
<td>28,847</td>
<td>28,986</td>
<td>4.6%</td>
<td>50.81%</td>
</tr>
<tr>
<td>가정주부</td>
<td>463,262</td>
<td>0</td>
<td>463,262</td>
<td>36.9%</td>
<td>103.00%</td>
</tr>
<tr>
<td>합계</td>
<td>1,259,212</td>
<td>471,384</td>
<td>787,828</td>
<td>100.0%</td>
<td>62.37%</td>
</tr>
</tbody>
</table>

주: 1) 여기서 노동가능인구는 남녀 모두 16세 이상 공제인구를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노동가능인구는 비노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노인인구(남자 60세 이상, 여자 50세 이상)를 합한 결과 됨. 그러나 노인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226,383명의 차이가 발생함.


표 7. 북한의 직업별 인구구조(1993년말 현재)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합계</th>
<th>남자</th>
<th>여자</th>
<th>경제활동인구 대비</th>
<th>여성인력비중</th>
</tr>
</thead>
<tbody>
<tr>
<td>노동자(1)</td>
<td>6,944,058</td>
<td>3,332,530</td>
<td>3,611,528</td>
<td>63.1%</td>
<td>52.01%</td>
</tr>
<tr>
<td>사무원(2)</td>
<td>1,471,859</td>
<td>978,093</td>
<td>493,766</td>
<td>13.4%</td>
<td>23.35%</td>
</tr>
<tr>
<td>농민(3)</td>
<td>2,588,925</td>
<td>1,251,228</td>
<td>1,337,697</td>
<td>23.5%</td>
<td>51.57%</td>
</tr>
<tr>
<td>합계</td>
<td>11,004,842</td>
<td>5,561,851</td>
<td>5,442,991</td>
<td>100.0%</td>
<td>49.46%</td>
</tr>
</tbody>
</table>

주: 1) 공업기업소, 합농기업소에서 무체 노동에 종사하는 자
2) 정부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사무원
3) 협동농장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살펴보면 첫째, 농민보다 기업소의 노동자 수가 약 2.7배 많게 나타나 북한의 산업사회가 아닌 공업사회로 사회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취업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49.5%로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남성인 근무자가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셋째, 특히 사무직보다는 농림·농지적업의 여성인력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별을 무시하는 북한 사회주의적 작업관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산업별 노동력구조를 살펴보면 공업부문의 노동력구조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농업(30.7%), 교육·문화·보건부문(7.7%) 등의 순서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공업부문의 경우는 1993년도 남한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제조업 인구비율 23.3%보다 약 30%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동북아의 산업별 고용구조가 서북아의 고용구조와 비슷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이러한 북한 공업부문의 높은 인구비중은 한반도 통일 이후 남북한 양각적의

---

표 8. 북한의 산업별 인구(1993년말 현재)
(단위: 명, %)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합계</th>
<th>남자</th>
<th>여자</th>
<th>경제활동인구대비</th>
<th>여성인력비중</th>
</tr>
</thead>
<tbody>
<tr>
<td>경제활동인구</td>
<td>11,004,842</td>
<td>5,561,851</td>
<td>5,442,991</td>
<td>100.0</td>
<td>49.46</td>
</tr>
<tr>
<td>공업</td>
<td>4,118,332</td>
<td>1,921,658</td>
<td>2,196,674</td>
<td>37.4</td>
<td>53.34</td>
</tr>
<tr>
<td>농업</td>
<td>3,381,950</td>
<td>1,718,021</td>
<td>1,663,929</td>
<td>30.7</td>
<td>49.20</td>
</tr>
<tr>
<td>건설·지질</td>
<td>466,365</td>
<td>352,124</td>
<td>114,242</td>
<td>4.2</td>
<td>24.17</td>
</tr>
<tr>
<td>운수·통신</td>
<td>402,477</td>
<td>283,921</td>
<td>118,556</td>
<td>3.7</td>
<td>29.11</td>
</tr>
<tr>
<td>국영농장·사</td>
<td>250,787</td>
<td>132,716</td>
<td>98,071</td>
<td>2.3</td>
<td>39.11</td>
</tr>
<tr>
<td>삼림·조달</td>
<td>308,330</td>
<td>161,097</td>
<td>147,233</td>
<td>4.6</td>
<td>68.33</td>
</tr>
<tr>
<td>교육·문화·보건</td>
<td>843,547</td>
<td>339,459</td>
<td>504,088</td>
<td>7.7</td>
<td>59.76</td>
</tr>
<tr>
<td>기타</td>
<td>1,034,673</td>
<td>621,415</td>
<td>413,258</td>
<td>9.4</td>
<td>38.97</td>
</tr>
</tbody>
</table>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북한의 주민의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기술자 및 전문가의 수를 현재 그동안 활동하다 16.3% (179万人)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할 의료 인력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이 수치는 아예 위반된 것으로 보는 1980년 현재 북한의 고등교육(전문학교와 대학) 이수자수(133만 3천명)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따라 북한이 제시한 기술자 및 전문가 수가 단순히 고등교육 이수자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들은 전부 산업전문기술인력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북한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의 교육에 치우쳐 있고, 강제적인 학습에서 개인의 창의력이란 개념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데는 효과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교육계는 의식된 "성장과정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하거나 또는 책임을 지지하지 못한 기술자격증을 수여받은 일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기술인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끝말말

이상에서 살펴본 1993년도 북한의 인구 산출결과 분석은 북한이 UNFPA의 지원을 받아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을 동원하여 감염병을 방지를 목표로 각기의 인구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려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인구통계, 실험실 총인구, 출생자 및 사망자수, 경제활동인구(직업별·산업별, 포함), 기술자 및 전문가수, 비경제활동인구 구성, 그리고 도시화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문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자료내 전반적인 내용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이용하기에 따라 서는 북한의 실정에 근거하는 인구통계 결과를 가진다. 좋은 것으로도 수용된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의 항목별 인구구조 방식이 이루곤가 항목의 경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에 한계가 있었음 무론보다도 북한인의 사회적 자료를 사용하여 그 외일관적인 인구통계자료와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군인수에 대한 통계수치를 어제의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본론결과는 최근 북한의 항상 인구통계자료의 편집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의 여러한 북한인구통계 보다도 비교적 자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되며, 이와 함께 기존의 다른 북한인구통계자료와 비교하여 본고의 결과가 갖는 함의나 문제점을 분석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